

일본의 중소기업 공공컨설팅 서비스 한국적 벤치마킹 필요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정책 우선과제로 삼은 부문으로 그 가운데 특정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전임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파견하는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 및 기술 공공컨설팅 서비스는 APEC 회원국들 중 가장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기업컨설팅은 기업경영 전반에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컨설팅 산업 자체가 지식집약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으로 매출액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의 핵심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해야할 국내 컨설팅사의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외국계 대형 컨설팅사의 국내진출 확대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¹⁾
 - 이러한 기업컨설팅 상황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 경영컨설팅 서비스는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 혁신정책 우선과제로 삼은 부문으로 그 가운데 특정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전임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파견하는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일본정부의 경영 및 기술 공공컨설팅 서비스는 APEC 회원국들 중 가장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은 현재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진단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1) 국내 100인 이상 컨설턴트 보유 : 엔드류, 네모파트너즈, 오픈타이드코리아 등 3개

□ 일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 공공컨설팅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 : Small & Medium enterprises and Regional innovation, Japan)를 들 수 있는데, 이 기관은 ‘04년 7월 중소기업종합사업단(JASMEC, 1962년 설립), 지역진흥정비공단(JRDC, 1962년 설립), 산업기반정비기금(ISIF, 1986년 설립)의 3개 법인을 합병하여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임.

- 여기서는 컨설턴트, 회계사, 기술자 등으로 이루어진 3,000여명의 전문가 그룹이 기업에 직접 파견을 나가 중소기업을 돕고 있으며, 이 때 사용되는 비용의 2/3를 SMRJ에서 부담하고 있음. 또한 인큐베이션 센터를 일본 전역에 신규 사업을 위한 센터 15개소, 대학과 협력을 통해 기업가를 양성하는 센터 17개소, 총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한 기업 수는 500개에 이름.
- 이렇게 일본 정부의 지원 하에 중소기업에서 애로로 느끼고 있는 기술 및 경영부문에 컨설팅 분야를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컨설턴트 역량교육 강화를 실시하고 있음.

□ 한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이외에 중소기업 컨설팅 서비스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직접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프로젝트 매니저, 경영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컨설팅 엔지니어,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인 등 전문가, 은퇴한 전문가 등의 전문 그룹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일본의 중소기업 컨설턴트 시스템은 ‘01년 시행된 중소기업 지원법(SME Support Law)에 따라 구축된 것으로 민간 중소기업 컨설턴트 및 공공 컨설팅 관리들까지 포함하는 국가 인증제도가 포함되어 있음. 특히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컨설턴트는 중소기업 정책 홍보자로서 기업과 행정기관 사이의 중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표 1〉 일본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기술 및 경영 공공컨설팅 서비스

구 분	주요 컨설팅 지원 내용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취득과 같은 전문적이고 어려운 경영문제들을 공략하기 위해 경영, 기술, 재무, 법무 분야의 전문가들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파견 ◎ 컨설턴트 단순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분담비율 : 기업(1/3), 국가(2/3) - 지원 기간 : 월 4회 이내, 최대 2년간 가능 - 컨설팅 단계 수행 중 PM 등이 회사를 방문하여 수행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 ◎ 기업의 퇴직자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분담 : 기업(1/3), 정부(2/3) - 기업의 일부분에 문제 발생 경우 활용 ◎ 창업기업 인큐베이트 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분담 : 시도(1/3), 중소기업공단(2/3) -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진단사의 폭넓은 지식 제공 및 전문가와 연결해주는 역할 ◎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중소기업 및 비즈니스 벤처지원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 기업활동의 기반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정보제공 서비스 - 프로젝트 향상을 위한 지도와 금융
인큐베이터 매니저 파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큐베이터 기능을 가진 기관에 인큐베이터 매니저를 파견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사업계획 작성, 판매채널 확대, 특허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 한편, 일본정부에서 제공되는 공공 경영컨설팅서비스의 강점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 혁신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다음으로, 각 중소기업별 특정 요구사항에 맞춘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가 및 인큐베이터 매니저 파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함.

- 종합적으로 3단계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구성된 각각의 중소기업지원센터들은 전임 컨설턴트를 포함한 1,000여명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대규모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3단계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경영컨설팅 제공에 있어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중소기업별 경영혁신 요구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지원 가능함.
-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벤처기업 지원 및 고난도 경영문제 해결, 현 단위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역 중소기업 경영 문제 해결, 지역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소기업들이 쉽게 접근해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함. 이러한 포괄성과 경제성으로 인해 일본 중소기업에게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의 기술 및 경영컨설팅 지원서비스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오다, 2000년 중반에 쿠폰제컨설팅지원체제로 변경하여 지원해 오고 있으나 지원실효성에 대해 과거 직접적인 컨설팅 지원체계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컨설팅은 물론이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일본의 공공컨설팅을 벤치마킹하여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전진단에 의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